'爲'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

金星周*

요 약

高麗時代 國語의 文法을 論議하기 위해서는 字吐釋讀口訣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字吐釋讀口訣을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原文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구결에 잘 반영되어 있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釋讀口訣의 문법적 특징을 밝히는 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爲'는 字吐釋讀口訣에서 多樣하게 懸吐된다. '爲'에 다양한 구결이 현토되었다는 사실은 口訣 懸吐者가 '爲'를 다양하게 해석했다는 증거가 된다. 字吐釋讀口訣에 나오는 '爲'는 크게 '위하다, 삼다, -고자/려고 하다, 하다, 되다'로 해석된다.

각각의 의미에 대한 '爲'자의 현토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위하다'에는 '(NPㅋ) {爲}ㅌ/ㅐ(ㅎ)', '삼다'에는 'NP1ㄹ/[NP + 以]/[S]ㅓ(ㅅ/ㅈ) NP2 {爲}ㅐ', '-고자/려고 하다'에는 '동사 어간+{爲}ㅅ', '하다'에는 '(NP)+{爲}ㅅ/ㄴ-', 피동을 포함하는 '되다'에는 [화엄경]과 [화엄경소]에서는 'NPㅔ尸 {爲}ㅅㄹㅅ-'로 [유가사지론]과 [합부금광명경]에서는 '{爲}NPㅔ尸ㅅㄹㅅ-'와 'NPㄹ 爲ㅅ-' 등이다.

*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핵심어: 字吐釋讀口訣, wei(爲), {爲}ㅡ/ㅣ(ㅎ), {爲}ㅡㄱ/ㅣ(ㅎ)ㄱ, {爲}ㅅ, {爲}ㅅ/ㄴ, {爲}ㅣㄹ/ㄴㅔㄹㅅㄹㅅ

1. 서론

고려시대 국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釋讀口訣은 우리에게 고려시대 국어의 文法的 特徵을 논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字吐釋讀口訣은 音讀口訣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자료이면서도 文法的인 側面에서는 後者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 한 언어의 文法的 特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口訣은 古典中國語를 우리말로 읽는 讀法 體系이며, 그 중에서도 釋讀口訣은 讀音, 形態, 統辭的 機能 등에 대해 많은 情報를 담고 있다. 中國語와 韓國語는 상당히 다른 類型論的 特徵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中國語를 韓國語로 읽기 위해서는 많은 裝置가 필요하다. 바로 이 裝置들이 지금은 古代國語의 문법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 글은 釋讀口訣에서 '爲'字에 懸吐되는 口訣字의 種類와 文法 形態의 機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高麗時代 國語의 文法的 特徵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釋讀口訣의 原文에서 文法的 機能을 擔當하는 단어를 찾아, 그 單語를 釋讀口訣에서 어떤 식으로 懸吐하여 解釋했는가를 살펴보는 方法은 有意味한 作業이 된다. 字吐釋讀口訣에서 '爲'字는 出現 頻度가 가장 높은 單語 가운데 하나이며 더욱이 9개의 서로 다른 口訣字에 의해서 懸吐되므로 懸吐 樣相이 複雜한 단어 중의 하나다.

이 글의 對象이 되는 資料는 字吐釋讀口訣 資料인『華嚴經疏』卷35,『華嚴經』卷14,『舊譯仁王經』卷上 落張 5枚,『合部金光明經』卷

3, 『瑜伽師地論』 卷20 등이다.

2. '爲'字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그 機能

字吐釋讀口訣에서 '爲'[1]字에 직접 懸吐되는 구결자는 'ㅡ, ᄒᆞ/ᄒᆞㅎ(ㅎ), ㅎ, ㅅ, ㅅ, ㅅ, ㅅㄹ, ㅅ, 一,' 등 모두 9개이다.[2] 아래에서 '爲'에 懸吐되는 구결자를 중심으로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1. {爲}ㅡ/ᄒᆞ(ㅎ)

'爲'字에 懸吐되는 代表的인 口訣字로 'ㅡ'을 들 수 있다. 音價는 [삼]으로 推定한다. 'ㅡ'은 資料에 따라 'ᄒᆞㅎ' 또는 이의 省略 表記인 'ᄒᆞ'로도 나타난다.

2.1.1. NPㅋ {爲}ㅡ(ㅎ)/ᄒᆞ(ㅎ)/ᄒᆞ(ㅅ)/ㅎ

'ㅡ/ᄒᆞ(ㅎ)'으로 현토되는 '爲' 가운데는 명사구를 지배하여 'NP를 위

---

1) 현대 북경어(Mandarin Chinese)에서 '爲'는 2聲(wéi)과 4聲(wèi) 등 두 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다.(大漢和辭典, pp. 571-574) 그러나 釋讀口訣은 聲調에 대한 표시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爲'字의 聲調를 考慮하지 않는다. 刊經都監諺解本 중 『法華經諺解』의 本文에는 聲調가 標示되어 있는데, '爲ᄒᆞ다'로 諺解될 때에는 平聲으로, 'ᄒᆞ다, -라 ᄒᆞ다, -고져 ᄒᆞ다, ᄃᆞ외다, 삼다'로 諺解될 때에는 去聲으로 標示되어 있다.

2) 아래의 (ⅰ)에는 '爲'에 'ᄉᆞ'가 현토되어 있으나 문맥을 고려하면 'ᄒᆞ'로 해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爲'에 현토된 구결자 목록에서 제외한다.
(ⅰ) 樹ㅣ 葉茂ᄂᆞᄀᆞᆫ 見 當 願 衆生 定ᄉᆞ 解脫ᄉᆞᄉᆞᆫ 以ᄒᆞㅅ 而ᄆᆞᆫ 蔭映ㅅ ᄆᆞ 爲ᄉᆞᄃᆞᄒᆞᆫ(나무가 잎이 무성함을 볼 때에는 반드시 원컨대 중생은 선정이니 해탈이니 하는 것으로 蔭映함을 삼으소서 (할 것이며)) <화엄 권14, 5:1>

하다'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1) 我ㄱ 當ㅅ 發意ᄂᆞᆞᄒᆞ 多聞藏ㄹ 持ᄂᆞᆞᄉᆞ 阿耨多羅三藐三菩提ㄹ 證ᄂᆞᆞᄒᆞ 諸ㄱ 衆生ᄋᆞᆫ {爲}ᄉᆞᆷ 眞實法ㄹ 說ᄆᆞᄒᆞᆞᄂᆞᆫᄃᆡ ᄂᆞᆫᄑᆞᄉᆞᆫㄹ (我ㄱ 當ㅅ發意ᄂᆞᆞᄒᆞ持[ᄂᆞᆞᄉᆞ]多聞藏ㄹ證[ᄂᆞᆞᄒᆞ]阿耨多羅三藐三菩提ㄹ爲[ᄉᆞᆷ]諸ㄱ 衆生ᄋᆞᆫ說[ᄆᆞᄒᆞᆞᄂᆞᆫᄃᆡ ᄂᆞᆫᄑᆞᄉᆞᆫㄹ]眞實法ㄹ 나는 마땅히 發意하여서 多聞藏을 지녀서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證得하여서 모든 衆生을 위해 眞實의 法을 이르겠다 하는 것을) <화소권35, 9:1-3>[3]

'{爲}ᄉᆞᆷ/ᄋᆞᆫ(ᄒᆞᆫ)'은 (1)에서와 같이 명사구를 지배하여 '-을 위하여'로 해석된다. 이때 명사구에는 'ᄋᆞᆫ'가 현토되는데 속격 표지일 가능성과 처격 표지일 가능성이 있으나, 속격 표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點吐釋讀口訣에서는 'NPᄋᆞᆫ {爲}ᄉᆞᆷ/ᄋᆞᆫ(ᄒᆞᆫ)' 구문에서 'NPᄋᆞᆫ'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菩薩ᄑᆞ, 如來ᄑᆞ' 등이 오는 예가 있으며, 유형론적으로도 동사가 속격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爲}ᄉᆞᆷ'은 『華嚴經疏』에 쓰이며, '{爲}ᄋᆞᆫ(ᄒᆞᆫ)'은 『華嚴經』, 『舊譯仁王經』, 『合部金光明經』에 쓰인다.

(2) 人 中ᄋᆞᆫ 師子ㄱ 衆ᄋᆞᆫ {爲}ᄋᆞᆫ(ᄒᆞᆫ) 說ㅁᆞᄒᆞᄂᆞᆫㄱ 大衆ㄱ 歡喜ᄂᆞᆞᄒᆞ 金花ㄹ 散ᄂᆞᆞᄇᆞᆨㅁᆞᄇᆞᆮㄹᄀᆞᆫ (人中ᄋᆞᆫ師子ㄱ 爲[ᄋᆞᆫ(ᄒᆞᆫ)]衆ᄋᆞᆫ說ㅁᆞᄒᆞᄂᆞᆫㄱ 大衆ㄱ 歡喜ᄂᆞᆞᄒᆞ 散[ᄂᆞᆞᄇᆞᆨㅁᆞᄇᆞᆮㄹᄀᆞᆫ]金花ㄹ 사람 중의 師子는 衆生을 위하여 이르시니 大衆은 歡喜하여 金花를 흩으며) <구인, 11:11>

---

3) 예문 제시는 구결문을 우리말 語順으로 排列한 것을 앞에 제시하고, 괄호 안에는 원문 순서대로 배열한 것과 現代國語 飜譯文을 실었다. 원문 순서대로 배열한 부분은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 경우도 있다. 飜譯文은 가능한 한 現代國語 話者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內容 把握이 어려운 경우에는 原文의 用語를 그대로 使用하였다.

(3) 是ㅅㅏㄴㅋ 時十 菩薩ㅣ 工匠ㅣㄕ{爲}ㅅㄴㅅㅏ 之ㄹ {爲}ㅑㅎ 種種ㅊ 業ㄴ 示現ㅅㄕㅁ (是ㅅㅏㄴㅋ 時十菩薩ㅣ 爲[ㅅㄴㅅㅏ]工匠ㅣㄕ 爲[ㅑㅎ]之ㄹ示現[ㅅㄕㅁ]種種ㅊ業ㄴ 이러한 때에 菩薩은 工匠이 되며 그들을 위하여 갖가지의 業을 示現하되) <화엄 권14, 19:13>

(4) 則 能 衆ㄹ {爲}ㅑ 說法ㅅㅜㅊ 時ㅅ十 音聲ㅣ 類ㄴ 隨ㅎㅅㅏㅁ 難ㅑ 思議ㅅㅓㅎㅌㅓㅎ (則能爲[ㅑ]衆ㄹ說法ㅅㅜㅊ時ㅅ十音聲ㅣ隨[ㅎㅅㅏㅁ]類ㄴ難ㅑ思議ㅅㅓㅎㅌㅓㅎ 곧 能히 衆生을 위하여 說法할 때에 音聲이 種類를 따르되 어렵게야 思議할 것이며) <화엄 권14, 13:14>

(2)에서 볼 수 있듯이 'NP를 위하여'로 해석되는 '爲'는 『舊譯仁王經』, 『合部金光明經』, 『화엄경』에서는 '{爲}ㅑㅎ'이 쓰인다. 『華嚴經』에서는 '{爲}ㅑㅎ'도 쓰이나 (4)와 같이 '{爲}ㅑ'도 보인다. 'NP를 위하여'로 해석되면서 '{爲}ㅡ/ㅑ(ㅎ)'으로 표기되는 예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瑜伽師地論』이다. 이 자료에는 'NP를 위하여'의 뜻을 가지고 있고, 'ㄹ'를 가진 論項을 지배하는 'ㅡ/ㅑ(ㅎ)'이 懸吐되는 '爲'는 없다. 『瑜伽師地論』이 唯識佛敎를 다루는 論書라는 특성상 이런 예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瑜伽師地論』의 字吐釋讀口訣 體系에서는 원래 이런 형식의 表記 方式을 採擇하지 않은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點吐釋讀口訣 資料인 『瑜伽師地論』 卷8에는 (5)와 같이 'NP를 위하여'로 해석되는 용례가 보인다.

(5) 顯示(ㅣ)ㅣ{者)xㅅㄱ 自ㄹ 知ㄴㄱ 所x ㅱ 故ㅅ 他ㄹ {爲}ㅑ 說x ㅱ 故ㄴx ㅣ (顯示[51(·)]者[23~33(··)]自[23(·)]所知[33(\),43(|)]故[55(·)]爲他[23(·),=24(·),구결자(ㅑ)]說[43(|)]故[21(·),51(:)] 顯示다 함은, 자신의 아는 바인 까닭이며 남을 위하여 말하는 까닭이다.) <유가 권8, 17:18>

(5)의 '爲'는 論項으로 名詞句 '他'를 가지고 있는데, 이 名詞句의 標識는 'ㅋ'이며, 자신은 'ᄒᆞ'로 현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가 點吐釋讀口訣『瑜伽師地論』卷5와 卷8을 통하여 오직 한 예만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문이 字吐釋讀口訣에서 典型的으로 'NP를 위하여'로 해석되면서 'ㅋ'로 표지되는 名詞句 論項을 支配하는 '爲'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點吐釋讀口訣『瑜伽師地論』에서 'ᄒᆞ'에 해당하는 점토는 '24(·)'인데, 이 위치에 해당하는 구결자인 'ᄒᆞ'를 角筆로 적어 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疑心의 餘地가 없다.[4] 字吐釋讀口訣『瑜伽師地論』에는 'NP를 위하여'로 解釋되면서 '爲'에 'ㅅ'가 懸吐된 例가 있다.

(6) 二 {於}餘 所ㄴ 事ᄋᆞ ᄒᆞ刀 他ㅋ 爲ㅅ尸入乙 請ᄉᆞᄋᆞ 能ᄀᆞ 成辦ㅅᄉᆞ 非ᄉᆞ刂ㄱ入ㅠ 故ᄀᆞ(둘째는 남은 바의 일에 대해서도 남을 위하는 것을 請하여 능히 이룩됨이 아닌 까닭이며) <유가 권20, 22:2>

(6)의 '爲'가 'NP를 위하여'로 解釋되는 것이 옳다면, 字吐釋讀口訣『瑜伽師地論』에서는 'NP를 위하여'로 解釋되면서 'ㅋ'에 의해 標識되는 名詞句 論項을 가지는 '爲'는 'ㅅ'로 懸吐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字吐釋讀口訣의 예는 아니지만 'NP를 위하여'로 解釋되면서 名詞句 論項을 支配하는 '爲'와 關聯하여 點吐釋讀口訣에만 보이는 'NP尸 {爲}ᄒᆞ'의 例를 제시한다.

(7) 又ㄱ 十方 世界 海ㄴ 一切 諸ㄱ 佛ㅁ刀 皆ㄴ 諸ㄱ 菩薩尸 {爲}ᄒᆞ

4) 現存하는 字吐釋讀口訣과 點吐釋讀口訣『瑜伽師地論』 자료를 통틀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가 오직 한 예밖에 나오지 않고, (5)에 해당하는 부분이 角筆로 'ᄒᆞ'를 特記해 놓았다는 사실에서 字吐와 點吐를 莫論하고『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 表記 方式에서는 이러한 懸吐 方式이 普遍的으로 使用되지 않았을 可能性을 생각해 볼 수 있다.

世界海ᄉ … 說ㅁ(ㅅ)xᄉxㅣ (又[33(·)]十方世界海[25(·)]一切{25(ㅣ)?}諸[33(·)]佛[35(·),42(ㅅ)]皆[25(·)]爲諸[33(·)]菩薩[44(·),=43(·)]說世界海[11(·)] 또한 十方 世界海의 일체 모든 부처도 다 모든 보살 위하여 世界海니 … 설한다.) <화엄 권6, 1:12-15>

(8) 爾時 兜率天王ㄱ 如來ㄹ {爲}ᄋᆞ 座ㄹ 敷置ㄹ 已ᄋᆞ(ㅅ)ㅁxㄱ (爾時兜率天王[33(·)]爲如來[44(·),43(·)]敷置座[41(·),44(·)]已[43(·),34(·),12(:)] 이 때 도솔천왕은 여래를 위하여 사자좌를 펴 놓고는) <화엄 권22, 9:23-24>

(7)의 '菩薩ㄹ {爲}ᄋᆞ'와 (8)의 '如來ㄹ {爲}ᄋᆞ'의 경우 'NPㅋ {爲}ㅡ/ᄋᆞ(ㅎ)' 구문과 동일하게 'NP를 위하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NPㅋ {爲}ㅡ(ㅁ)/ᄋᆞ(ㅎ)' 구성에서 '爲'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의 격은 속격일 가능성이 크다.[5]

2.1.2. {爲}ㅡㅁ/ᄋᆞㅁ/ᄋᆞㅎ/ᄋᆞㅅ/ㅁ

'爲'에 'ㅡㅁ/ᄋᆞㅁ/ᄋᆞㅅ/ㅁ' 등이 현토되고 '위하여'로 해석되지만 論項을 지배하지 못하는 '爲'의 예가 있다. 이 때의 '爲'는 論項을 생략한 채 단독으로 쓰이는 것으로 마치 '以'가 論項을 지배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境遇와 유사하다.

---

5) 'NP를 위하여'로 해석되는 '爲' 구문 가운데는 (ⅰ)과 같이 先行名詞의 標識가 省略된 경우도 있어 제시한다.

(ⅰ) 吾ㄱ 今ㅅㄱ 先ᄌ 諸ㄱ 菩薩 {爲}ᄋᆞㅎ 佛果ㄹ 護ㅅᄉᆞㄴ 因緣ᄉ 十地ㄴ 行ㄹ 護ㅅᄉᆞㄴ 因緣ᄉㅅㄹ 說白ㄹㅎㄴㅣ(吾ㄱ 今ㅅㄱ 先ᄌ 爲[ᄋᆞㅎ]諸ㄱ 菩薩ㆍ說[白ㄹㅎㄴㅣ]護[ㅅᄉᆞㄴ]佛果ㄹ因緣ᄉ護[ㅅᄉᆞㄴ]十地ㄴ行ㄹㆍ因緣ᄉㅅㄹ、 나는 지금 먼저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保護하는 因緣이니 十地의 行을 護持하는 因緣이니 하는 것을 演說한다.) <구인, 3:18-19>

(9) 但ㅅ 彼 境界乙 {因}ㅡㅋㅅ 衆生乙 攝取ㄴ{欲}ㅅ {爲}ㅡㅁ 眞實乙 說ㄴㅋㅅ 佛法乙 成熟 令ㅐㅏㅊㅁ (但ㅅ欲[ㅅ]因[ㅡㅋㅅ]彼境界乙 攝取[ㄴ]衆生乙爲ㅡㅁ說[ㄴㅋㅅ]眞實乙令[ㅐㅏㅊㅁ]成熟[ㆍ]佛法乙 단지 저 境界로 因하여서 衆生을 攝取하고자 (중생을) 위해 眞實을 說하여서 佛法을 成熟하게 하며) <화소 권35, 13:18-19>

(10) 或ㄲ 有ㅏ ㅣ 國土ㅐ 法ㄴ 知ㄹ 不ㄴㅏㄹㅊㅣ {於}彼ㅐㅓㅏㄱ {爲}ㅣㅁ 妙法藏ㄴ 說ㅁㅂㅎㅈㅁ (혹 있다, 國土가 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곳에는 위하여 妙法藏을 演說하시며) <화엄 권14, 14:16>

(11) 能ㅊ 摧伏ㄴㅁㅇ 無ㄱ 聞持陁羅尼ㅅㅐ {爲}ㅣㄴ 本ㅐㅅㄹ{作}ㄴㅈㄱㅅ〻{故}ㄴ (능히 굴복시킬 이 없는 聞持陁羅尼가 위하여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금광 권3, 7:2-3>

(12) 勝義正法隨轉圓滿ㅐㅣㄴㄱㅅㄱ{者} 謂ㄱ 卽ㅁ 大師ㅐ 善ㅈ {爲}ㅁ 俗正法乙 開示ㄹ 已ㅣㄴㅁㅂㅅ 諸ㄱ 弟子衆ㅐ 此 正法乙 依ㅈ (勝義正法隨轉圓滿이다 하는 것은 즉 곧 大師가 위하여 俗正法을 잘 開示하고서 모든 弟子들이 이 正法에 의지하며) <유가 권20, 3:5-7>

(9)의 '{爲}ㅡㅁ'는 『華嚴經疏』, (10)의 '{爲}ㅣㅁ'는 『華嚴經』, (11)의 '{爲}ㅣㄴ'는 『合部金光明經』, (12)의 '{爲}ㅁ'는 『瑜伽師地論』에서 표기되는 형식이다.[6]

2.1.3. NP_1乙 NP_2 {爲}ㅡ/ㅣ(ㅁ)

'爲'가 3項 動詞로 쓰여 두 개의 명사구를 지배하여 'NP_1을 NP_2로

6) (11)의 '聞持陁羅尼ㅅㅐ {爲}ㅣㄴ 本ㅐㅅㄹ{作}ㄴㅈㄱㅅ〻{故}ㄴ'를 <동국대역경원 한글대장경>에서 '문지(聞持)다라니로 근본을 삼는 까닭에'로 해석하였으나, (11)의 '爲'는 이른바 지배받는 논항 없이 단독으로 쓰인 '爲'로 보이며, 적어도 구결의 현토자는 그런 식으로 파악하였다. (11)의 '{爲}ㅣㄴ'를 단독의 '爲'로 보면 이 부분이 菩薩 十地의 이름을 풀이하는 부분(6:22-7:15)에 해당되므로 '(보살을) 위하여'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삼다'를 의미할 경우가 있다. 이때의 '爲'도 [삼]으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NP_1에는 對格 'ㄹ'이 懸吐되고 NP_2에는 格標識가 懸吐되지 않으며 '爲'에는 'ㅡ/ㅣ' 등이 懸吐된다.

(13) 佛子ㅣ 菩薩(ㄱ) {云}何ㅌㅣㅣ 無過失身語意業ㄴ 得ㅿ … {云}何 智ㄴ 先導 爲ㅣㅁㅿㅌ 身語意業ㄴ 得ㅿ (佛子ㅣ 菩薩ㄱ 云何ㅌㅣㅣ 得[ㅿ]無過失身語意業ㄴ … 云何得[ㅿ]智ㄴ爲[ㅣㅁㅿㅌ]先導ㆍ身語意業ㄴㆍ 佛子여 菩薩은 어떻게 無過失身語意業을 얻으며 … 어떻게 智를 先導 삼는 것의 身語意業을 얻으며) <화엄 권14, 1:4-5>

'NP_1ㄹ NP_2 {爲}ㅣ' 구문은 『華嚴經疏』에는 보이지 않으며, 나머지 자료에서는 'ㅣ'가 현토된다. (13)은 『華嚴經』의 예인데, NP_1에 '智'가 쓰였고 格標識로는 'ㄴ'이 懸吐되며, NP_2에 '先導'가 配當되며 論項 標識는 없다. 이때 原文의 順序는 항상 'NP_1 + 爲 + NP_2'가 되어 'NP_1'은 '爲'의 앞에, 'NP_2'는 '爲'의 뒤에 배열된다.

'NP_1ㄹ NP_2 {爲}ㅣ' 構文은 'NP_2'에 해당하는 부분에 用言이 올 경우와 'NP_1ㄹ'에 해당하는 부분에 節(clause)이 오는 경우가 있다. 前者에는 動詞를 名詞形으로 바꾸어 주는 文法的 機制가 사용되고, 後者의 경우에는 'ㅣ/ㅏ, ㅣㅎ, ㅣㅂ' 등이 이끄는 副詞節이 온다.

(14) 能ㅿ 一法ㅇㅏㄲ 生ㅢㄹ 不ㅱㄴㅣㅋ 亦 一法ㅇㅏㄲ 滅ㄹ 不ㅱㄴㅣㅋㄴㅡㅏ 平等見ㅢㄴㅡㄱㅅㄹ {爲}ㅣㄱㅅㅁ 故ㄴ (不[ㅱㄴㅣㅋ]能ㅿ生[ㅢㄹㆍ]一法ㅇㅏㄲㆍ亦不[ㅱㄴㅣㅋㄴㅡㅏ]滅[ㄹㆍ]一法ㅇㅏㄲㆍ爲[ㅣㄱㅅㅁ]平等見ㅢㄴㅡㄱㅅㄹㆍ 故ㄴ 능히 一法만큼도 내지 않고 또 一法만큼도 滅하지 않고 하시어 平等見이신 것을 삼은 까닭으로) <금광 권3, 13:4-7>

(15) {於}彼 一切 有ㅌㄱ 所ㅌ 有情ㅋㅓㅅ 得ㅸ 最勝ㄴㅣㅌ {爲}ㅣㄴㅓㅎㅁ

是 故ᄆᆞ 說ᄆᆞ 名ᄒᆞ 聖所住ᄒᆞᆫ 住ᄂᆞᄉᆞᆫᄀᆞ ᄀᆞᆫᄂᆞᆫᄒᆡ (於彼一切所[ᄂᆡ]有ᄂᆡᆫᄀᆞ ᄒᆞ有情ᄅᆞᆫ得ᄒᆞ爲[ᄒᆞᄂᆞᆫᄒᆞᄆᆞ]最勝ᄂᆞᄒᆞᄂᆞ是故ᄆᆞ說ᄆᆞ名ᄒᆞ住[ᄂᆞᄉᆞᆫᄀᆞ ᄀᆞᆫᄂᆞᆫᄒᆡ]聖所住ᄒᆞᆫ ᄒᆞᄂᆞ 저 一切 가진 有情에 대해 능히 最勝함을 삼아서 이런 까닭으로 이르기를 聖所住에 머물 것이다 할 것이다.) <유가 권20, 31:2-5>

(14)는 'NP$_1$ㄹ NP$_2$ {爲}ᄒᆞ' 구문에서 NP$_2$에 해당하는 부분에 用言이 오고 '-ㅣㄴㄱ ㅅㄹ'이 懸吐되었다. 'NP$_1$을 NP$_2$로 삼다'로 해석되는 '{爲}ᄒᆞᆫ/ᄒᆞ(ᄒᆞᆫ)'의 경우 'NP$_1$ㄹ NP$_2$ {爲}ᄒᆞᆫ/ᄒᆞ(ᄒᆞᆫ)'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4)는 NP$_2$에 대격이 현토되었다. (15)는 NP$_1$에 해당하는 名詞句가 'x十'를 취하며 NP$_2$ 자리에 '用言+ᄂᆞᄒᆞ'가 오는데 『瑜伽師地論』에서는 비교적 出現 頻度가 높은 예이다. 이때의 '爲'는 '여기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많다.[7]

(16) 彼ᄀᆞ {於}圓滿ᄂᆞᄀᆞ ᄅᆞᆫ 多 方便ㄹ 修ᄂᆞᄀᆞ ㅅㄹ ㄹ 以ᄒᆞ 依止 {爲}ᄒᆞᄒᆞᆫ (彼ᄀᆞ 於圓滿ᄂᆞᄀᆞ ᄅᆞᆫ十修[ᄂᆞᄀᆞ ㅅㄹ ㄹ]多方便ㄹ、以ᄒᆞ爲{ᄒᆞᄒᆞᆫ}依止ᄂᆞ 그는 圓滿함에 대해 많은 方便을 닦아서 依止를 삼아) <유가 권20, 18:19-21>

(17) 若 相(ㄹᄆᆞ) 莊嚴(ᄂᆞᄑᆞᄆᆞ) 三十二ᄉᆞᆫᄂᆞᄒᆞᄑᆞ ㅅㄹ ㄹ 則 隨好ᄒᆞ 具ᄀᆞᄒᆞᆫ ᄒᆞ 嚴飾 {爲}ᄒᆞᄒᆞᄒᆞᄀᆞ (若相莊嚴三十二ᄉᆞᆫᄂᆞᄒᆞᄑᆞ ㅅㄹ ㄹ 則具[ᄀᆞᄒᆞᆫ ᄒᆞ] 隨好ᄒᆞ爲[ᄒᆞᄒᆞᄒᆞᄀᆞ]嚴飾 만일 相으로 莊嚴하는 데 있어 三十二相을 莊嚴하면 隨好를 갖추어서 嚴飾으로 삼을 것이며) <화엄 권14, 12:22>

'NP$_1$ㄹ NP$_2$ {爲}ᄒᆞ' 구문에서 NP$_1$에 해당하는 부분에 節(clause)이 올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16)과 같이 'NP$_1$' 대신에 '以'가 이끄는 절

7) 용언을 명사구로 바꾸는 기제로는 동명사 어미 'ㄱ'이나 'ᄑᆞ'이 쓰이는 예도 있다.

이 오기도 하고, (17)과 같이 연결어미 '-ㅣ ㅸ'이 이끄는 절이 오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ㅣ ㅸ' 대신에 '-ㅣ ㅅ, -ㅣ' 등이 쓰이기도 한다.

2.2. ㅅ

'爲'가 '-고자/-려고 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18) 我ㅋ … 彼ㅋ十 施ㅅ{爲}ㅅㅅㄱㅅ 故ㅈㅣ 而ㅁ 自ㅋㅁ {之}ㅐ 己 食ㅅㄴㅎㅗ 其 味ㅣ十 貪ㄱ 不ㅅㄴㅎ (我ㅋ … 爲[ㅅㅅㄱㅅ]施[ㅅ]彼ㅋ十故ㅈㅣ而ㅁ自ㅋㅁ食[ㅅㄴㅎㅗ]之ㅐ己不[ㅅㄴㅎ]貪[ㄱ]其味ㅣ十 내가 … 저들에게 주고자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 먹지 그 맛을 탐해서가 아니며) <화소 권35, 9:15-16>

(19) 我ㄱ 今ㅅㄱ 永ㅊ 貪愛己 捨ㅅ{爲欲}ㅅ {此}ㅐ 一切 必ㅂ 離散ㅅㅊㅎㄷ 物ㄷ己 以ㅣㅂ 衆生ㅋ 願己 滿ㅎㅐㅁㅐㅣㅇㅊㅣㅅㄴㅎ (我ㄱ今ㅅㄱ 爲欲[ㅅ]永ㅊ捨[ㅅ]貪愛己以[ㅣㅂ]此ㅐ一切必ㅂ離散ㅅㅊㅎㄷ物ㄷ己滿[ㅎㅐㅁㅐㅣㅇㅊㅣㅅㄴㅎ]衆生ㅋ願己 나는 이제 영원히 貪愛를 버리고자 반드시 一切 離散하는 物로 衆生의 願을 滿足시킬 것이다 하며) <화소 권35, 12:16-17>

(18)과 같이 '爲'는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고자/-려고 하다'를 의미하는데, 이때 '爲'에는 'ㅅ'가 현토된다. '-고자/-려고 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欲'의 경우도 'ㅅ'로 현토되며, 동일한 의미인 '爲欲'도 'ㅅ'로 현토된다. 이들은 『舊譯仁王經』을 제외한 자토 구결 자료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爲'가 'ㅅ'로 현토되어 있으면서도 [-고자 하다]로 해석되지 않는 예가 『舊譯仁王經』에 있다.

(20) 가. 大王ㅌ {是}ㅐ 故ㅁ 佛佛ㅐ {於}世十 出現ㅅㄷㅌ 衆生己 {爲}ㅅㅅㄷㄱㅅㅁ 故ㅅ 說ㅣㅸ 三界ㅅ 六道ㅅㅅㄴㅎㄷ 名字己 作ㅅ

白ᄒᆞᆫ乙 是乙 名ᄒᆞ 無量 名字ᄉᆞᄆᆞᆫᄉᆞ (大王下是ㅣ故ᄇᆞᆷ佛佛ㅣ出現[ᄋᆞᄂᆞᆫ下]於世十爲[ᄉᆞᄋᆞᄂᆞᆫ尸ㅅᄇᆞᆷ]衆生乙、故ᄂᆞᆯ說ᄒᆞᄉᆞ作[ᄋᆞ白ᄒᆞᆫ乙]三界ㅅ六道ㅅᄂᆞᆯᄉᆞᄆᆞᆫ七名字乙、是乙名ᄒᆞ無量名字ᄉᆞᄆᆞᆫᄉᆞ 大王이시여 이런 까닭으로 부처 부처가 世間에 出現하시어 衆生을 위한 까닭으로 演說하여서 三界니 六道니 하는 것의 名字를 짓는 것을 이를 일러 無量한 名字라 한다.) <구인 14:4-6>

나. 대왕이여, 이런 까닭에 부처님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위하여 삼계와 육도의 이름을 지어서 설하시니, 이것을 한량없는 명자라 하느니라.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

(20)의 '爲'는 'ㅅ'로 현토되어 있으나 (18, 19)와 같이 '-고자 하-'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위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20)의 '爲ㅅ'의 '爲'를 '위하다'로 해석하고, '爲ㅅ'의 'ㅅ'를 '-고자/-려고 하-'로 해석하여 (20)의 '衆生乙 {爲}ㅅᄋᆞᄂᆞᆫ尸ㅅᄇᆞᆷ'를 '衆生을 위하고자 하는 까닭으로'로 해석하면 'ㅅ'의 해석에 대한 一貫性을 기할 수 있다.

2.3. {爲}ᄋᆞ/ᄂᆞ

字吐釋讀口訣에는 '爲'字가 '하다'의 意味로 解釋되는 例가 있다. 이 경우 懸吐되는 口訣字는 'ᄋᆞ' 또는 'ᄂᆞ'이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21) 佛子ᄒᆞ 何ᄀᆞ {等}ㅣᄋᆞᄂᆞᆫ乙 菩薩摩訶薩尸 聞藏ㅓᄂᆞᄉᆞᄆᆞ{爲}ᄋᆞᄂᆞᆫᄉᆞᄆᆞ尸ㅅᄂᆞᆫ (佛子ᄒᆞ何ᄀᆞ等ㅣᄋᆞᄂᆞᆫ乙爲[ᄋᆞᄂᆞᆫᄉᆞᄆᆞ尸ㅅᄂᆞᆫ]菩薩摩訶薩尸聞藏ㅓᄂᆞᄉᆞᄆᆞ 불자여 어떤 것들을 菩薩摩訶薩의 聞藏이라 하는가?) <화소 권35, 1:3>

(21)의 漢文 原文은 敍述語인 '爲'를 中心으로 첫 번째 論項인 '何等'과 두 번째 論項인 '菩薩摩訶薩聞藏'으로 되어 있으나, 口訣文은 前

者가 '何ㅋ {等}ㅣㅅㄱㄹ'로 懸吐되고, 後者가 NPㅡㅅㅎㅁ{爲}ㅅㅡ'로 懸吐된다. '爲'는 繫辭와 3項 敍述語로 解釋될 可能性이 있으나, 口訣文은 항상 後者로 解釋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字吐釋讀口訣에서는 이런 用法의 '爲'를 繫辭로 處理한 경우는 없다.[8]

(22) 何ㅅㄱㄹ{者} {爲}五ㅐㅂㅁㅅㅎㅁㅅㄴㅏㄹㅅㄱ (何ㅅㄱㄹ者爲五ㅐㅂㅁㅅㅎㅁㅅㄴㅏㄹㅅㄱ 어떤 것을 다섯 가지이라고 하는가 하면) <금광 권3, 3:1>

(22)는 『合部金光明經』의 예인데, (21)과 同一한 構造를 가지는 構文이다. 그런데 『華嚴經疏』에서는 (21)과 같은 '何等爲NP' 구문이 'ㅅㅡ' 또는 'ㅅㅡ'로 적극적으로 懸吐되지만, 그 이외의 자료에서는 이런 경우 '爲'에 口訣이 懸吐되지 않는다.

(23) {云}何ㅅㄱㄹ 名ㅏ {爲}多諸思擇ㅐㅣㅅㅎㅁ 謂ㄱ 勝善慧ㄹ 名ㅏ {爲}思擇ㅡㅅㅍㅡ (云何ㅅㄱㄹ名ㅏ爲多諸思擇ㅐㅣㅅㅎㅁ謂ㄱ勝善慧ㄹ名ㅏ爲思擇ㅡㅅㅍㅡ 어떤 것을 일러 多諸思擇이라 하는가? 즉 勝善慧를 일러 思擇이라 한다.) <유가 권20, 27:16-17>

(23)은 '云何名爲NP' 構文으로 (22)와 마찬가지로 '爲에 口訣이 懸吐되지 않는다.

(24) {此}ㅐ 慧無盡藏ㅇ十 十ㅍ 種ㄴ 不可盡 有ㄴㄱㅅㅠ 故ㅈ 說ㅍ 無盡ㅡ{爲}ㅅㅊㅏㅣ (此ㅐ慧無盡藏ㅇ十有[ㄴㄱㅅㅠ]十ㅍ種ㄴ不可盡、故ㅈ說ㅍ爲[ㅅㅊㅏㅣ]無盡ㅡ 이 慧無盡藏에 열 가지의 不可盡이 있는 까닭으로 이르기를 無盡이라 한다.) <화소 권35, 19:12-13>

---

8) 15세기 諺解들에서도 繫辭(copula)로 機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是'를 繫辭로 諺解한 경우는 없다.

(24)는 '爲'에 'ㅅ'가 懸吐된 예이다. (21)과 同一하게 解釋되며 『華嚴經疏』를 除外한 字吐釋讀口訣에는 보이지 않는다.

(25) {是}ㅣㄹ {爲}ㅅㅁㅁ 菩薩摩訶薩ㅁ 六ㅎ 第ㅊ 施藏ㅡㅅㄲㅏㅣ (是ㅣㄹ爲ㅅㅁㅁ菩薩摩訶薩ㅁ第[ㅊ]六ㅎ施藏ㅡㅅㄲㅏㅣ 이를 이르기를 菩薩摩訶薩의 여섯째 施藏이라 한다.) <화소 권35, 16:17-18>

『華嚴經疏』에는 引用 動詞로 機能하는 '爲'에 대해 (21, 24)와 같이 'ㅅ-'나 'ㅅ-'로 懸吐되지 않고, (25)와 같이 引用 動詞는 그대로 懸吐하되 '爲'字는 漢文의 順序대로 解釋되어 'ㅅㅁㅁ'이 懸吐되는 예가 있다.

(26) 가. 爾ㅡㅊㅅㄱ 時ㅓ 智首菩薩ㄱ 文殊師利菩薩ㅁㅓ 問ㅈ 言ㅎㅁㅁ <화엄 권14, 1:4>
나. 爾ㅊㅅㄱ 時ㅓ 佛ㄱ 大衆ㅋㅓ 告ㅅㄷㅁㅁ <구인, 3:17>
다. 時ㅓ 波斯匿王ㄱ 言ㄷㅁㅁ 善ㄷㅎㄱㅓㅓ 大事ㅊ 因緣ㅠ{故ㅅ}ㅅㄷㅁㅏㄱㅣㄱㅜㅅㅈ <구인, 3:20>
라. 佛 {言}ㅁㄷㅁㅁ 善男子ㅈ 五種 法ㄹ 依ㅈ 菩薩摩訶薩 檀波羅蜜ㄹ 成就ㅅㅏㅎㅊㅣ <금광 권3, 2:21-22>

(25)의 '{爲}ㅅㅁㅁ'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 動詞를 文尾에서 解釋하지 않고 原文의 順序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26)의 '言ㅎㅁㅁ, 言ㄷㅁㅁ, {言}ㅁㄷㅁㅁ, 告ㅅㄷㅁㅁ' 등과 유사하다.

(27) 又 正ㅊ 了知ㅅㅈㅂ 而ㅠ {爲}受用ㅅㅁㅁㅁ 謂ㄱ 是 {如}ㅈ 等ㅅㄱ 諸 資生具ㄱ 但ㅅ 身ㄹ 治ㅅㅈㅂ 敗壞ㅁ 不ㅿㅅ{令}ㅣㅋ (又正ㅊ了知ㅅㅈㅂ而ㅠ爲受用ㅅㅁㅁ謂ㄱ 如[ㅈ]是ㆍ等ㅅㄱ 諸資生具ㄱ 但ㅅ爲[ㅅㅅㅋㄱㅣㅈㅊㅣㅅㅁ分]治[ㅅㅈㅂ]身ㄹㆍ令[ㅣㅋ]不[ㅿㅅ]敗壞ㅁ 또 바로 了知하여서 受用하되 이른바 이 같은 모든 資

生具는 오직 몸을 다스려서 敗壞하지 않게 하고) <유가 권20, 19:13-16>

(28) 一十ㄱ 若 捨ㅅㅋㅎ 爲ㅅ尸 不ㅎㅅㄱㅣ十ㄱ 自作 能 不ㅎㅅ尸入ㅠ 故ㅎ (一十ㄱ若捨ㅅㅋㅎ不[ㅎㅅㄱㅣ十ㄱ]爲ㅅ尸、不[ㅎㅅ尸入ㅠ]能[、]自作、故ㅎ 첫째는 만약 버려서 하지 않을 때에는 自作을 能히 할 수 없는 까닭이며) <유가 권20, 22:1-2>

(29) 二 {於}餘 所ㄴ 事ㅋ十刀 他ㅋ 爲ㅅ尸入乙 請ㅅㅋ 能ㅎ 成辦ㅅ ㅎ 非ㅊㅋㄱ入ㅠ 故ㅎ (二於所[ㄴ]餘、事ㅋ十刀非[ㅊㅋㄱ入ㅠ]請[ㅅㅋ]他ㅋ爲ㅅ尸入乙、能ㅎ成辦ㅅㅎ、故ㅎ 둘째는 나머지 것의 일에도 남의 하는 것을 請하여서 능히 이루어질 것이 아닌 까닭이며) <유가 권20, 22:2-3>

(27~29)의 '爲'는 包括的인 意味 機能을 가진 우리말의 '하다' 동사와 類似하게 解釋된다. (27)의 '爲'는 '受用ㅅ-'라는 動詞 앞에 位置하지만 (28, 29)의 '爲'는 動詞 없이 單獨으로 機能한다는 差異가 있다.

한편 『瑜伽師地論』에는 '何等爲NP', '何者爲NP', '云何名爲NP' 등의 構文에 속하지 않으면서 '爲'가 'ㅅ'로 懸吐된 몇 예가 있다.

(30) 가. 若 說法師ㅣ 此 義乙 爲ㅅ邑人ㅅ尸入ㅠ 故ㅅ 正法乙 宣說ㅅ ㅏㄱ乙 其 聽法者ㅣ 卽ㅋ 此 義乙 {以}ㅋ 而ㅠ 正法乙 聽ㅅ ナヲ皿 是 故ㅠ 此 時乙 名下 饒益他ナㅅヲㅎ (若說法師ㅣ 爲[ㅅ邑人ㅅ尸入ㅠ]此義乙、故ㅅ宣說[ㅅㅏㄱ乙]正法乙、其聽法者ㅣ卽ㅋ以[ㅋ]此義乙、而ㅠ聽ㅅナヲ皿正法乙、是故ㅠ此時乙名下饒益他ナㅅヲㅎ 만약 說法師가 이 이치를 위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正法을 宣說하거늘 그 聽法者가 곧 이 이치로써 正法을 들을 것이라서, 이런 이유로 이 때를 일러 饒益他라 하며) <유가 권20, 5:21-23>

나. 만약 법을 말하는 스승이 이런 이치를 위하여 바른 법을 펴서 말하면, 그 법을 듣는 이는 곧 이런 뜻으로써 바른 법을

드나니, 그러므로 이때에는 다른 이를 이롭게 한다고 하며,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

(30)의 '爲'는 該當 部分의 한글대장경의 解釋인 (30다)을 參照하면 '위하다'로 解釋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瑜伽師地論』의 경우 '위하다'의 意味로 解釋되는 '爲'에 'ㅌ/ㅋ(ㅎ)' 등이 積極的으로 懸吐되지 않은 傾向이 있으므로, '위하다'의 意味를 가진 '爲'가 『瑜伽師地論』에서는 'ㅅ'나 'ㅣ'로 懸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30)의 '爲ㅅ-'를 (27~29)와 같은 包括的인 意味의 '하다'와 類似하게 解釋할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의 '爲'에 懸吐된 口訣字들 중에는 그 技能을 모르는 것도 있어서 正確한 解釋은 어려우나, 包括的인 意味의 '하다'로 解釋하면, 大略 '만약 說法師가 이 이치를 하려는 까닭으로' 즉 '만약 說法師가 이 이치를 밝히려는 까닭으로' 정도로 解釋할 수 있다.

2.4. {爲}ㅅㄹ/ㅅ/ㅡ

2.4.1. 'NPㅣㄹ/ㅣㅎㄹ {爲}ㅅㄹㅅ-' 구문

'爲'에 'ㅅㄹ'이 懸吐되고 補語에 該當하는 名詞句에 'ㅣㄹ'이 懸吐되어 '되다'를 意味하는 'NPㅣㄹ/VPㅣㅎㄹ {爲}ㅅㄹㅅ-' 構文이 字吐釋讀口訣의 모든 資料에서 確認된다.

(31) 惟ㅅ 願ㅁㄹㅅㄱ 大王ㅣㅎㄱㅅㄱ 之ㄹ 捨ㅅㅋㅎ 我ㅋ十 與ㅅㅁ ㅅㅎㅿ 幷ㅱ 及ㅌ 王ㅋ 身ㄲ 我ㅋ 臣僕ㅣㄹ{爲}ㅅㄹㅅㅁㅅㅎ立ㅅㅿㄱㅣ十 (惟ㅅ願ㅁㄹㅅㄱ大王ㅣㅎㄱㅅㄱ捨[ㅅㅋㅎ]之ㄹ與[ㅅㅁㅅㅎㅿ]我ㅋ十幷ㅱ及ㅌ王ㅋ身ㄲ爲[ㅅㄹㅅㅁㅅㅎ立ㅅㅿㄱㅣ十]我ㅋ臣僕ㅣㄹ 오직 바라건대 大王께서는 그것을 버려서 저에게 주시며 아울러 王의 몸도 저의 臣僕이 되소서 하는 경우에) <화

소 권35, 11:19-20>

'되다'로 解釋되는 'NPリ尸/VPノヰ尸 {爲}ㅅ乙ン-' 構文은 (31)과 같이 '爲'의 支配를 받는 論項이 名詞일 경우에는 'リ尸'이 懸吐되지만, 動詞일 경우에는 (32, 33)의 '歸ノヰ尸, 趣ノヰ尸'과 같이 'ノ(ヰ)尸'이 懸吐된다.

(32) {云}何 得ㇾ尓 一切 衆生ヲ 與ㇾ 依リ尸{爲}ㅅしンカ 救リ尸{爲}ㅅしンカ 歸ノヰ尸{爲} 趣ノヰ尸{爲} 炬リ尸{爲} 爲明 爲照 爲導 爲勝導 普導リ尸{爲}ㅅしンカ 云何 {於}一切 衆生ヒ 中ㇾ十 第一リ尸{爲} 爲大 爲勝 爲最勝 爲妙 爲極妙 爲上 爲無上 爲無等 無等等 {爲}ㅅしンナヰㇾヒロ (云何得ㇾ尓與ㇾ一切 衆生ヲ、爲[ㅅしンカ]依リ尸爲[ㅅしンカ]救リ尸爲歸ノヰ尸爲趣ノヰ尸爲炬リ尸爲明爲照爲導爲勝導爲[ㅅしンカ]普導リ尸云何於一切衆生ヒ中ㇾ十爲第一リ尸爲大爲勝爲最勝爲妙爲極妙爲上爲無上爲無等爲[ㅅしンナヰㇾヒロ]無等等 어떻게 능히 一切 衆生에게 依支가 되고 救護가 되고 歸依되고 횃불이 되고 … 普導가 되고 어떻게 一切 衆生 中에 第一이 되고 … 無等等이 될 것입니까?) <화엄 권14, 2:6-7>

(33) 或ンㄱ {於}曠野ㇾ十 大樹リ尸ㅅし{作}ンカ 或ンㄱ 良藥ㇲ 衆ㄱ 寶藏ㇲノヰ尸{爲}ㅅしンカ (或ンㄱ於曠野ㇾ十作[ンカ]大樹リ尸ㅅし或ンㄱ爲[ㅅしンカ]良藥ㇲ衆ㄱ寶藏ㇲノヰ尸 或은 曠野에서 大樹가 되며 或은 良藥이니 많은 寶藏이니 하는 것이 되며) <화엄 권14, 19:10>

(32)의 경우 '爲'에 의해 支配 받는 論項이 名詞일 경우와 動詞일 경우가 섞여 있으므로 'リ尸'과 'ノヰ尸'로 懸吐되다가, '趣ノヰ尸' 以後의 '炬'부터 마지막의 '無等等'까지는 名詞이기 때문에 'リ尸'을 懸吐하고 中間 部分에는 口訣을 省略한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33)은 'A

ㅅ B ㅅ'와 같은 羅列 構文에서 羅列된 部分을 아우르는 所謂 아우름 동사가 이끄는 全體 構成를 論項으로 삼는 [되다]로 解釋되는 'NPㅣㄲ/VPノオㄲ {爲}ㅅ乙ン-' 구문으로, 이 경우에도 '爲'에 의해 支配 받는 論項은 動詞이므로 'ノオㄲ'이 懸吐되었다.

한편 '作'이 '되다'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34) 是 會ヒ 大衆ㄱ 皆 悉 彼ム 往ミ 爲ノ 聽衆ㅣㄲㅅ乙{作}ンロヒノオ分 (是會ヒ大衆ㄱ 皆悉往[ミ]彼ム、爲ノ作[ンロヒノオ分]聽衆ㅣㄲㅅ乙、 이 會의 大衆은 모두 다 그곳에 가 위하여 聽衆이 될 것이며,) <금광 권3, 15:5-7>

(34, 35)의 '爲'에는 'ㅅ乙ン-'가 현토되는 보어 논항에 'ㅣㄲ'이 현토되는 것과는 달리 '作'에 의해 지배받는 논항에 'ㅣㄲㅅ乙'이 현토되고 '作'에는 'ン-'만 현토된다.

『華嚴經』에 보이는 'NPㅣㄲ/ノオㄲ {爲}ㅅ乙ン-' 構文은 被動과 關聯이 있는 경우도 있다.

(35) 林藪ミ十 處ンㄱレ 見(ミㄱㅣ十ㄱ) 當(ハ) 願(ロㄲㅅㄱ) 衆生(ㄱ) 天人ラ{之} 歎仰ノㄲ{所}ㅣㄲ{爲}ㅅレンホ{應}センヒ立 (見(ミㄱㅣ十ㄱ)處[ンㄱレ]林藪ミ十當(ハ)願(ロㄲㅅㄱ)衆生(ㄱ)應[センヒ立]爲[ㅅレ ンホ]天人ラ之所[ㅣㄲ]歎仰ノㄲ 숲에 處한 사람을 볼 때는 마땅히 願하건대 "衆生은 天人에 의해 讚仰 받으소서") <화엄 권14, 7:2>

(35)에서와 같이 古典中國語에서 典型的인 被動文으로 간주되는 '爲A所B' 構文이 『華嚴經』에서는 'NPㅣㄲ/VPノオㄲ{爲}ㅅ乙ン-' 構文으로 解釋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華嚴經』에 (35)를 포함하여 모두 5개의 예가 보인다. 『瑜伽師地論』에도 'NPㅣㄲ/VPノオㄲ

{爲}ㅅㄷㄴㅡ' 構文이 있지만 '爲A所B' 구문은 항상 '爲ㅅ' 構文으로 懸吐된다.

2.4.2. 爲ㅅ

'爲'에 'ㅅ'가 懸吐되는 것은 『瑜伽師地論』에서만 보이며 모두 12개의 例가 있다. '爲ㅅ'는 被動과 關聯되는 것으로 보인다. '爲ㅅㅡ' 構文은 古典中國語에서 被動을 表現하는 典型的인 構文인 '爲A所B'에 該當하는 例가 많기 때문이다. 『瑜伽師地論』에 나오는 12개의 '爲ㅅ' 構文 가운데 8개가 '爲A所B'에 該當된다.

(36) 謂ㄱ {於}四沙門果ㅋ 十 能分 隨ノ 證ノ尸 所乙 {有}ㅓ尸 未ㅅㄴㄱㅅㅠ 故ノ 猶ㅣ 惡趣苦ㅋ 隨逐ノ尸 所乙 爲ㅅ分 體ㅣ 是ㄱ 生老病死ㄴ 法ㅣㄱㅅㅠ 故ノ 內壞苦ㅋ{之} 隨逐ノ尸 所乙 爲ㅅ分 一切 所愛離別ㄴ 法ㅣㄱㅅㅠ 故ノ 愛壞苦ㅋ{之} 隨逐ノ尸 所乙 爲ㅅ分 自業ㅋ 作ノㄱ 所ㅣㄱㅅㅠ 故ノ 一切 苦因ㅋ{之} 隨逐ノ尸 所ㅣㅣ (謂ㄱ於四沙門果ㅋ十未[ㅅㄴㄱㅅㅠ]能分隨ノ有[ㅓ尸・]所[乙・]證ノ尸・故ノ猶ㅣ爲[ㅅ分]惡趣苦ㅋ所[乙・]隨逐ノ尸・體ㅣ是ㄱ生老病死ㄴ法ㅣㄱㅅㅠ故ノ爲[ㅅ分]內壞苦ㅋ之所[乙・]隨逐ノ尸・一切所愛離別ㄴ法ㅣㄱㅅㅠ故ノ爲[ㅅ分]愛壞苦ㅋ之所[乙・]隨逐ノ尸・自業ㅋ所[ㅣㄱㅅㅠ]作ノㄱ故ノ一切苦因ㅋ之所[ㅣㅣ]隨逐ノ尸 즉 네 가지 沙門의 果位에 대해 능히 따라 證得됨을 가지지 못한 까닭으로 아직도 惡趣苦에 쫓기며 몸이 이는 生老病死의 法인 까닭으로 內壞苦에 쫓기며 一切 所愛離別의 法인 까닭으로 愛壞苦에 쫓기며 自業의 지은 것이므로 一切 苦因에 쫓긴다.) <유가 권20, 18:2-7>

(37) 若 我ㄱ 是 如ㅈ 自策ㅅㅎ 自勵ㅅㅎㅅㄱ 誓ㅈ 三處乙 受ㅅㄱㄴㅡ 猶ㅣ 四苦ㅋ 常ㅣ 隨逐ノ尸 所乙 爲ㅅㄱ 得ㅈ 解脫 未ㅅㄴ(ㄱ?)ノㄱㅣㅁ 我ㄱ 今ㅌ 苦ㅋ 隨逐ノ尸ㅅㄷ 爲ㅅㄱ {於}勝定ㄱ

十 自在ㅅㄱ入乙 獲得 未ㅎㅅㄱㅣ十 中路ᄒᆞ十 止息ㅅᄒᆞ 或 復 退屈ㅅᄒᆞㄴᄃᆞ{應}ᄒᆞㅅㄱ 不矢ㄱㅣᄒᆞᄒᆞㅣㅅᄒᆞ (若我ㄱ 如[ᄉᆞ]是、自策ㅅᄒᆞ自勵ㅅᄒᆞㅅᄒᆞ 誓ㅂ受[ㅅᄒᆞㅅㄱㅗ]三處乙、猶ㅣ爲[ㅎᄒᆞ]四苦ㅋ 常ㅣ所[乙、]隨逐ㄴ尸、未[ㅎㅅ(ᄒᆞ?)ㄱㅣㅛ]得ㅂ解脫、我ㄱ 今 ᄇ不[矢ㄱㅣᄒᆞᄒᆞㅣㅅᄒᆞ]應[ᄒᆞㅅㄱ]爲[ㅎᄒᆞ]苦ㅋ隨逐ㄴ尸入乙、未[ㅎㅅㄱㅣ十]於勝定ᄒᆞ十獲得、自在ㅅㄱ入乙、中路ᄒᆞ十止息ㅅᄒᆞ或 復退屈ㅅᄒᆞㄴᄃᆞ、 만일 나는 이 같이 自策하고 自勵하고 하여 맹세해서 三處를 받으나 오히려 항상 四苦에 쫓겨서 능히 아직 解脫하지 못함이라서 나는 지금 苦에 쫓겨서 勝定에서 自在한 것을 아직 獲得하지 못하였으면 中途에 止息하고 혹 다시 退屈하고 할 수 있지 않겠다 하여) <유가 권20, 18:14-19>

『瑜伽師地論』에도 『화엄경소』나 『화엄경』과 같이 'NPㅣ尸{爲}入乙ㅅ-' 構文도 존재하는데, 『瑜伽師地論』의 'NPㅣ尸{爲}入乙ㅅ-' 構文이 '爲A所B' 構文의 口訣에 使用된 경우는 없다. 『瑜伽師地論』에서는 일반적인 '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被動의 意味를 가지는 경우를 구분하여, 前者는 'NPㅣ尸/ㄴᄒᆞ尸{爲}入乙ㅅ-' 構文으로 後者는 '爲ㅂ' 構文으로 區分하여 解釋하였다고 볼 수 있다.

2.4.3. 爲ㅡㅣ

'爲ㅡㅣ'도 '爲ㅂ'와 마찬가지로 『瑜伽師地論』에만 나온다..

(38) 此 尋思ㅁ{之} 擾動ㄴㄱ 所乙 由ᄒᆞ 障导乙 爲ㅡㅣ尸入ㅁ 故ㄴ 喜樂乙 生尸 不ᄉᆞᄒᆞㅅㄱㅗ (由[ᄒᆞ]此尋思ㅁ之所[乙、]擾動ㄴㄱ、爲[ㅡㅣ尸入ㅁ]障导乙、故ㄴ不[ᄉᆞᄒᆞㅅㄱㅗ]生[尸、]喜樂乙、 이 尋思로 擾動하는 것을 말미암아 障导를 받는 까닭으로 喜樂을 내지 못한다.) <유가 권20, 8:8-12>

(39) 又 此 二十種ㄹ 所對治法ㄱ 略ㅁㄱ 四相乙 由ᄒᆞ {於}生起ㄴ尸 所

ㄴ 三摩地ㄴ 中ㅋㅓ 堪能ㅎ 障乙 爲ㅡㅣㅏㅎㄴㅣ (又此二十種ㄴ 所對治法ㄱ 略ㅁㄱ 由[ㅋ]四相乙、於所[ㄴ]生起ㅅㄲ、三摩地ㄴ中ㅋㅓ 堪能ㅎ爲[ㅡㅣㅏㅎㄴㅣ]障乙、 또 이 스무 가지의 所對治法은 간략하게 말하면 四相을 말미암아 生起하는 바의 三摩地 中에서 능히 障碍를 받을 수 있다.) <유가 권20, 14:17-19>

(40) 能ㅏ 障导乙 爲ㅡㅣㅅㄴ 有ㅅㄱ 所ㄴ 煩惱ㅣㄱ 此 諸 煩惱ㄱ 能ㅏ 隨眠ㅣㄲ{爲}ㅅㄹㅅㅋ 深遠ㅎ 心ㅋㅓ 入ㅅㅎ (能ㅏ爲[ㅡㅣㅅㄴ]障导乙、所[ㄴ、]有ㅅㄱ 煩惱ㅣㄱ 此諸煩惱ㄱ 能ㅏ爲[ㅅㄹㅅㅋ]隨眠ㅣㄲ、深遠ㅎ入[ㅅㅎ]心ㅋㅓ、 능히 障导를 받는 所有한 煩惱인 이 모든 煩惱는 能히 隨眠이 되어 深遠히 마음에 들어가고) <유가 권20, 30:7-9>

(38~40)이 '爲ㅡㅣ'이 나오는 예의 全部인데, 例文이 적고 限定된 文脈에만 使用되어 있어 機能 把握이 쉽지 않다 '爲ㅡㅣ'는 모두 '障导' 또는 '障'를 論項으로 취하고 있다. '障导/障乙 爲ㅡㅣ-'은 모두 '장애가 되다' 정도로 해석된다. 意味上 被動과 關聯될 可能性도 있으나 斷言할 수 없다.

3. 결론

지금까지 '爲'字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結論을 대신하여 앞에서 論議하였던 內容을 要約한다.

첫째, 字吐釋讀口訣 資料인『華嚴經疏』卷35,『華嚴經』卷14,『舊譯仁王經』卷上 落張 5枚,『合部金光明經』卷3,『瑜伽師地論』卷20 등에서 '爲'字에 懸吐되는 口訣字는 'ㅡ, ㅋ/ㅋ(ㅎ), ㅇ, ㅅ, ㅅ, ㅅ, ㅅ 乙, ㅅ, 一,' 등 모두 9개이다.

둘째, '爲'에 懸吐되는 口訣字를 '爲'의 意味를 기준으로 나누면 첫

째 '위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ㅌ/ᄒᆞ(ᄒᆞᆷ)', 둘째 '삼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ㅌ/ᄒᆞ(ᄒᆞᆷ)', 셋째 '-고자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ㅅ', 넷째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ㄴ/ㄴᆞ', 다섯째 '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ㅅㄱㄴᆞ-, 爲ㅅ, 爲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위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ㅌ/ᄒᆞ(ᄒᆞᆷ)'은 [삼]으로 읽히며 크게 하나의 論項을 支配하는 경우와 副詞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論項 標識로 'ᄋᆞᆯ'가 사용되며, 『華嚴經疏』에서는 '{爲}ㅌ'이 쓰이며, 『舊譯仁王經』과 『合部金光明經』에서는 '{爲}ᄒᆞᆷ'이, 『華嚴經』에서는 '{爲}ᄒᆞᆷ'과 '{爲}ᄒᆞ'가 쓰인다. 『瑜伽師地論』에서는 'ㅌ' 系列이 쓰이는 경우가 없다. 後者의 경우는 資料에 따라서 '{爲}ㅌᄆᆞ/{爲}ᄒᆞᄆᆞ/{爲}ᄒᆞᆷ/{爲}ᄒᆞㄴᆞ/{爲}ᄆᆞ' 등이 쓰인다.

넷째, '삼다'의 의미를 가지는 'NP$_1$ㄹ NP$_2$ {爲}ㅌ/ᄒᆞ(ᄒᆞᆷ)' 構文은 '{爲}ㅌ/ᄒᆞ(ᄒᆞᆷ)'이 3項 動詞로 쓰여 NP$_1$에는 對格 'ㄹ'이 懸吐되고 NP$_2$에는 格標識가 懸吐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해석은 'NP$_0$가 NP$_1$을 NP$_2$로 삼다'로 된다. 原文의 順序는 항상 'NP$_1$'과 'NP$_2$' 사이에 '爲'가 위치한다.

다섯째, '-고자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ㅅ' 또는 '{爲欲}ㅅ'는 『舊譯仁王經』을 제외한 字吐釋讀口訣 資料에서 廣範圍하게 확인된다.

여섯째, '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爲}ㄴ/ㄴᆞ'는 자료에 따라서 懸吐 樣相이 현저한 差異를 보인다. '何等爲NP' 構文에서 『華嚴經疏』는 '爲'에 'ㄴᆞ-' 또는 'ㄴᆞ-'가 적극적으로 懸吐되지만, 그 이외의 資料에서는 懸吐되지 않는다. 우리말의 '하다' 動詞와 類似한 '{爲}ㄴ/ㄴᆞ'는 『瑜伽師地論』에 주로 보인다.

일곱째, '되다'로 解釋되는 '{爲}ㅅㄱㄴᆞ/爲ㅅ/爲ㅡ' 등에서 'NPㅣㄹ/VPㄴᆞㅎㄹ {爲}ㅅㄱㄴᆞ-' 構文은 華嚴經 系列에서는 語彙意味로서의 '되다'와 被動 表現에 모두 쓰이지만, 瑜伽師地論 系列에서는 'NPㅣㄹ/VPㄴᆞㅎㄹ {爲}ㅅㄱㄴᆞ-' 構文이 語彙的 意味로서의 '되다'로만 쓰이고, 被動 表現에는 '爲ㅅ' 構文이 쓰인다. '爲ㅡㅣ' 구문도 被動과 관련이 있을

可能性이 있지만 예가 적고 제한된 환경에만 쓰여서 그 기능을 단언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高正儀(2004), 「口訣 硏究의 現況과 課題」,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pp. 5-44.

金星周(2005), 「釋讀口訣에서의 '爲'字-懸吐 樣相과 機能」, 제31회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 37-63.

김영욱(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시상과 서법」, 『口訣硏究』 5, 구결학회, pp. 147-164

남경란(2003), 「『大方廣佛華嚴經疏(卷35)』 입겾(口訣),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pp. 137-159.

南權熙(2002),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古印刷博物館.

南星祐·鄭在永(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구결학회.

南豊鉉(2000), 『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太學社

南豊鉉(1999), 『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太學社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8,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pp. 121-205.

박진호(1999), 「舊譯仁王經 口訣의 構文論的 양상」, 『口訣硏究』 5, 口訣學會, pp. 189-200.

이 용(2003), 「釋讀口訣에 나타난 否定詞의 機能에 대하여」, 『口訣硏究』 11, pp. 153-188.

백두현(1999),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경어법」, 『口訣硏究』 5, 口訣學會, pp. 167-197.

沈在箕·李丞宰(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口訣學會, pp. 29-111.

李東林(1982), 「구역인왕경의 구결해독을 위하여」, 『論文集』 21, 東國大, pp. 137-186.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國語學』 23, 國語學會, pp. 325-380.
이은규(2003), 「『大方廣佛華嚴經疏(卷35)』 석독 입겿문의 동사 '삼-'에 대하여」, 『語文學』 81, 한국어문학회, pp. 165-188.
장경준(2001), 「釋讀口訣의 '故'자의 현토 경향에 대한 고찰(1)-字吐釋讀口訣 자료 5종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7, 口訣學會, pp. 113-134.
장경준(2002), 「點吐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 -『유가사지론』 권5, 8을 대상으로-」, 『口訣硏究』 9, 口訣學會, pp. 205-225.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口訣硏究』 12, 口訣學會, pp. 47-80.
鄭在永(1998), 「合部金光明經(卷三),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pp. 113-193.
정재영 외(2003), 『韓國 角筆 符號口訣 資料와 日本 訓點 資料 硏究 -華嚴經 資料를 중심으로-』, 太學社.
황선엽(2002), 국어 연결어미의 통시적 연구-한글 창제 이전 차자표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411-83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34 에이스 10차Ⓐ 102-1002〕
E-mail: sutra01@hanmail.net
접수일자: 2005. 6. 17.
게재결정: 2005. 7. 30.

The Kugyol(口訣) and its function annotated at wei(爲)

Kim, Seong-Ju

To study the grammar of Classical Korean in Goryeo Dynasty, we must investigate Jato-Seokdok-Kugyeol(字吐釋讀口訣)(henceforth, JSK). Its because we has no data excepting the JSK. We can not study the old Korean grammar leaving out the JSK. We can make clear the characteristics of old Korean in Goryeo Dynasty by investigating into JSK.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Kugyol(口訣) and its function annotated at the letter of wéi(爲) or wèi(爲). The letter wéi(爲) or wèi(爲) has various meaning and it was reflected in JSK. But unfortunately, there was no marking for tone(聲調) in JSK and I can not help writing wei(爲) for wéi(爲) or wèi(爲).

The letter wei(爲) was annotated by 9 Kugyol(口訣), which are 三, 氵/氵(亇), 厂, 人, 丶, 丿, 入乙, 八 and 一. The meaning of wéi(爲) or wèi(爲) is classified into 5 types. They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for the purpose of or in order to', in this case wei(爲) is annotated like {爲}三/氵(亇).

The second one is 'to make or to regard as', in this case wei(爲) is noted like 'NP1乙 NP2 {爲}三/氵(亇)'. The first NP, i.e. NP1乙 is sometimes substituted for the clause introducing yǐ(以) or gugyeolja -氵, -氵八, and -氵ホ.

The third one is 'to intend to', in this case wei(爲) is annotated like 'Verb stem +{爲}人'.

The forth one is 'to do', in this case wei(爲) is annotated like '爲丶/

ノ-'. But in this case, again, wei(爲) is more classified into two types. one is the case for representing the concrete meaning of 'to do' i.e. 'to make' and the other for representing the abstract meaning of 'to do' itself.

The last one is 'to be or to become', in this case wei(爲) is differently annotated according to its source. In Tafangkuangfohuayenchingsu (大方廣佛華嚴經疏) vol. 35. and Buddhāvataṃsaka-mahāvaipulya-sūtra (大方廣佛華嚴經) vol. 14., the wei(爲) meaning 'to be or to become' is annotated like NPリ/VPノヰ {爲}ㅅㄱㄴ-. The difference between VPリ and NPノヰ is that the NP is original noun or not. In Yogacāra būṃmi(瑜伽師地論) vol. 20. and Hopuchinkuangmingching(合部金光明經) vol. 3., the wei(爲) meaning 'to be or to become' is annotated like NPリ/VPノヰ {爲}ㅅㄱㄴ- and the wei(爲) functioning passive marker is annotated like NPㄱ 爲ㅎ-. The former represents the general verb 'to become' and the other has relation to the passive meaning of it.

Key words: Jato-Seokdok-Kugyeol, Kugyeolja(口訣字), wéi(爲), wèi(爲)